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5년 4월 5일 (토) 제 2011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예배드리는 내가 대견한 자의식이라는 무게

나의 시선이 합당한 유일한 분께로 향하도록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가 초래한 의도치 않은 결과 중 하나가 예배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되는 미묘한 변화이다. 사실 이젠 대형 교회에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한 목사와 신학자들의 설교는 기록되었고 또 널리 배포되었다. 그런 관행은 어느 정도까지는 설교자에게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목사가 의도치 않은 사람들이 "옛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양떼를 위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라디오가 가장 먼저 나왔고, 다음으로 나온 텔레비전이 예배를 방송에 적합한 형태로 몰아갔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과 소셜 미디어(특히 COVID-19 이후)가 결합되면서 교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교회의 예배가 방송되는 시대가 되었다. 나는 다른 글에서 이러한 추세가 초래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 즉 누구나 우리 교회의 예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됨으로 생기는 교단에 가해지는 부담을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 이젠 방송 품질이나 온라인 도달 범위에 관한 게 아니기에 쉽게 놓치는 부분이다. 다른 아니라 예배자에 대한 것이다.

예배와 자의식

얼마 전에 나는 감동적인 예

배자를 찍기 위해서 열렬히 애를 쓰는 교회 사진작가를 패러디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았다. 그 작가는 교회의 소셜 미디어에 올릴, 예배 중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은 교인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그 게시물에 재미있기는 했지만, 동시에 착잡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예배가 방송된다는 게 예배자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이 나중에 비디오나 온라인 사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또는 라이브 스트림을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카메라에 내가 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예배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닐까?

교인들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낯선 사람들이 나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나의 예배가 달라지는 건 아닐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연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말씀은 이런 유혹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준다. 말씀은 입술과 마음이 동떨어진 예배에 관해서 경고한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우리는 관대함을 자랑하는 것에 관해서 또한 금식의 티를 내는 것에 관해서도 경고를

받는다.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만적인 것이 마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나를 속일 때처럼 그 기만성이 두드러질 때도 없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 싶어 하는 허영심이 아닐까? 그런데 실상은 문제가 그것보다 더 깊다면 어떨까? 만약에 나의 연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면, 그 위험은 과연 어떤 걸까? 항상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를 상상하면서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드러내는 상황은 과연 어떤 것일까?

<3면으로 계속>

10살 아들 잭이 작년 지역 챔피언십에서 암벽 등반 벽의 첫 번째 홀드를 잡는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평소 부드럽던 그의 동작이 어색하고 망설여졌다. 첫 번째 시도에서 미끄러졌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또다시 미끄러졌을 때, 나는 그의 마음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 제발 이 일이 아이의 마음을 꺾지 않게 해 주세요. 이 실망을 통해 그에게 유익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잭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몇 시간은 며칠로 이어졌고, 우리는 열린 성경을 앞에 두고 경험을 나누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때때로 꼭 끌어안으며 함께 고민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잭은 조용히 부엌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엄마, 저 깨달은 게 있어요." "뭘데, 아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 순위가 하나님께 속해야 할 자리를 제 마음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

잭은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한 가지 이념과 씨름하고 있었다.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 의사·변호사·박사 과정 학생들조차 이로 인해 우울에 빠지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취가 곧 우리의 가치'라는 메시지다.

<16면으로 계속>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Step 2: 주문하기

Step 3: 시안확인/수정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8:3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시 론

잃어버린 보배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슬픈 역사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탄핵의 강을 넘었던 한국사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체 국민들이 나뉘어져 각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의 과정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장 귀중한 가치와 보물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에 대한 경시와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위선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권정당이 선거를 통해 바뀌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이있는 나라일수록 수권정당이 바뀌는 과정이 더 질서있고 품위있게 이루어집니다. 한 정당이 정권을 가져올 수도 혹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은 보통 5년 혹은 10년(미국의 경우 4년 혹은 8년)이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잃어버린 혹은 비틀어져 버린 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불신 내지는 거부감은 시간적으로도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현상은 마치 전염병처럼 정치의 영역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중앙정치에 대한 불신은 지방정치로 옮겨가게 되고, 정치에서 받은 상처는 직장을 넘어 작은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마저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힘과 권력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원칙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그 말을 누가 가장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반박하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나뉘지고, 더 근본적으로는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는 무서운 사고관을 지금 온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구약성경의 사사시대가 21세기 우리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나 혹은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할 때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한 환자를 대하다 다른 환자를 진료할 경우에 혹시라도 있을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그리고 한 음식을 만들다가 새로운 음식을 다루어야 할 때 이전 음식에 사용되었던 양념의 흔적이 새로운 음식에 옮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갑을 바꿉니다. 마치 한 번 사용되고 나면 버려지는 일회용 장갑처럼 지금의 정치는 이전 집권자들이 취한 모든 것은 다 쓸모없고 전염병 같은 그래서 버려야만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집권자에 의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지며 항전해야만 살아남는 국가에서는 권력자들이 생존을 위해 법을 비틀고 그 법의 해석을 비틀어야만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회용 장갑 정치’가 시작되었는지 이제 생각이 깊은 원로들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긴 긴 세월 동안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창조주가 가르쳐 주신 그분의 말씀과 교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진리와 가치를 일회용 장갑처럼 필요할 때 잠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일상화되기 이전에 창조주에게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살롬.

hankschoi@gmail.com

로버트 브라우닝에게 배우는 ‘몸’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펼쳐지는 소중한 창조적 선물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 몸과 마음과 영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삶을 형성해 가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의 삶은 몸과 마음과 영이 상호 작용하며 공명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의 온전한 상호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온전한 상호성은 실재의 상호 연관성과 실재의 상호 주체성을 모두 포함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에 대한 실재의 상호 연관성은 모든 차원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며, 실재의 상호 주체성은 각 차원은 주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이다. 실재의 상호 연관성은 차원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고, 실재의 상호 주체성은 모든 차원의 가치에 대한 개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몸과 영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경향이 있다. 특히 몸은 영적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몸과 영적 삶의 상호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몸과 영적 삶의 상호성이란 몸과 영적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되듯이 건강한 영적 삶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건강한 영적 삶은 심장박동률과 혈압과 불안을 낮추고, 질병에서 회복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수술 후의 통증도 덜했다. 건강한 영적 삶은 노년에 시작되어도 유익하다. 앤드류 뉴버그 박사 연구진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특히 사랑의 하나님을 하루 12분씩 30일만 묵상해도 MRI 뇌 검사로 측정된 사랑회로, 즉 전두대상피질이 커졌고, 심장박동률과 혈압이 낮아졌고, 기억력 시험에 30퍼센트의 향상을 보였다(Andrew Newberg, How God Changes Your Brain, 27-32).

인간은 기계가 아니므로 컴퓨터가 작동되는 원리와는 다른 특징이 있지만, 흥미롭게도 컴퓨터의 작동 시스템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작동할 수 없고 셋이 다 있어야만 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 인간도 몸과 마음과 영의 차원 또는 인격의 한 차원이라도



없으면 건강한 삶을 경험할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삶에서 몸을 부정적인 차원으로 보는 이유는 육, 육신과 같은 용어가 비의적인(esoteric) 개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육, 육신과 같은 용어는 단지 몸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몸과 마음과 영으로서 인간이나 부패한 인간성과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플라톤과 같이 영혼, 즉 이성 빛의 근원이고 몸과 감정은 어두움의 근원이라고 보는 이원론은 큰 오류이다. 플라톤은 정신의 작용과 육체의 작용 간에 근원적 거리가 있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감정은 억누르고 죽여서 정신이 원활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은 상호 작용할 뿐 아니라 이성과 감정을 완전히 나눌 수 있다는 관점은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몸과 마음과 영의 차원 또는 인격으로 형성된 인간은 특정한 시공간에 속한 사회적 토대 위에서 삶을 고취해 나가는 형성적 존재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은 어느 하나의 차원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서로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 온전하게 된다.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의 차원은 신체적, 정신적, 초월적 양상 또는 인격으로 나타나지만, 이 세 차원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성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존재다.

에릭 존슨도 인간은 다차원적 존재

로 창조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인간의 다차원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바르게 작용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Eric Johnson, Foundations for Soul Care, 371-78). 만약 몸과 마음의 신경 생리적 질서나 심리적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작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신경 생물 질서와 심리적 질서 뿐만 아니라 영적 질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영적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적 선물인 몸과 마음과 영의 질서와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의 영적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의 질서를 위한 신경 생리, 심리 관계, 가족 체계, 사회 문화, 영적 질서와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향유해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다차원적 질서를 형성하는 창조적 선물인 몸과 마음과 영의 질서와 상호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핵심은 몸과 마음과 영은 상호성 안에 있고 서로에게 환원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실재의 상호 주체성은 몸과 마음과 영의 각 차원의 개성(individuation)을 인정하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넨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 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 저 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New York · New Jersey

선교사의 집

후원: 917-599-3620
40-22-158st Flushing, NY 11358
Sunnysun@yahoo.com

담임 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 위치한 뉴라이프교회는 복음주의 독립 교회로서 1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 미전도 종족 선교 비전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PDF로 제출)

- 이력서(영한, 가족사진 첨부)및 본인소개서(목회 철학, 비전, 은사등)
-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 6개월 이내 설교 2개 동영상 온라인 링크 2개(일반설교, 선교주제의 설교)
- 추천서 2부(담임 목사나 신학교 교수)

서류 제출 마감 4월 30일 2025

주의 및 안내 사항

-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해서만 사용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된 서류는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여 전화 면접함
- 모든 서류는 PDF 첨부 파일로 E-mail: baegnewlife@gmail.com

뉴라이프교회 청빙 위원회

Chicago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담 임 목사 청 빙 공 고

한인 동산 장로교회는 미국개혁교단(RCA) 소속으로, 뉴욕주 Westchester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5년에 설립되어 50주년이 된 교회입니다. 2025년 12월 은퇴 예정인 제 2대 담임목사님의 후임으로 사역을 이끌어 주실 제 3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합니다.

A. 자격 요건

- 미국 개혁 교단(RCA) 또는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단에 소속되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써 Full-time 목회 경험이 3년 이상 있으신 분
- 한국어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에 결정 사유가 없으신 분

B. 제출 서류

- 이력서 (신학 교육, 목회 경력 포함 및 본인·가족 사진 첨부)
- 소개서 (본인 및 가족 소개)
- 신앙고백서 (목회소명 간증문)
- 목회 계획서 (장·단기 목회 계획)
- 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M.Div 포함)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설교 영상 (최근 1년 내 설교 동영상 3편, 설교 원고 포함)
 - 주일 설교: 한국어 2편 또는 한국어 1편 & 영어 1편
 - 절기 설교: 한국어 1편
-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자가 청빙위원회 공식 이메일로 직접 제출)

C. 유의 사항

- 모든 서류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 공식 이메일 (church.nydongsan@gmail.com)로만 접수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 과정에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빙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서류 접수 마감일: 2025년 5월 31일

한인 동산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Dongsan Korean Reformed Church of Westchester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https://nydongsan.com>
church.nydongsan@gmail.com

목사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성경으로 만들어진 형성 과정을 보면서 깊은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책은 한 머리 좋은 유대인이 저술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서 일점일획도 틀린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믿고 살았다. 그런

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 성경이 지금의 책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책으로 읽으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졌는데 그 책마다 저자가 다르다. 그리고 시대도 다른 때에 써졌다. 구약은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정경으로 삼은 것을 기독교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AD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금의 27권으로 결정되었다. 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어느 책이 성경이 되는가를 결정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믿을만한 거냐고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틀린 것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것은 맞는 것일지 의심하게 까지 되었다. 그래서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처럼 일어나 헛소리를 하였다. 성경을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면 그동안 나의 믿음은 무엇이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다. 학교에서는 신약 성경이 성경이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다. 처음엔 사도 성을 말했고, 오래된 문서로 근거를 삼아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초대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던 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말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법칙에 어긋난 경우도 있는 데 성경에는 사도가 쓰지 않은 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사도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말하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또한 오래된 문서가 다 성경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신약 성경보다 더 오래된 문서도 있었지만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던 문서도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성경으로 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정론이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것은 그런 모든 과정에 성경이 개입하셔서 성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금 억측처럼 들리지 않는가? 마치 인간 마음대로 정해놓고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역지를 부리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엉뚱하게 이 의문을 다른 데서 풀게 되었다. 그것은 신약 개론을 공부하면서 지금도 성경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두 제자를 말하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열두

나라 말로 번역하여도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것을 분명히 느끼는 것은 도미니카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거나 부흥회를 하면 그곳 분들은 스페니쉬 성경으로 읽고 듣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입고 인생이 변화되었다. 역시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어로 번역된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인생이 바뀌는 분들을 본다. 나는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일점일획이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일하시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심이 들면 말씀대로 살아보라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신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 주일"부터 "부활 주일"까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려 주일"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마 21:1-17), "월요일"에는 이른 아침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 21:18-22),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 그리고 장로들의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마 21:23-46),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날입니다.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고,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잡혀셨습니다. (마 26:17-75),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지냈습니다. (마 27:1-66), "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부활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 28:1-15)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호산나"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원하소서", "공황을 베푸소서", "행복을 주옵소서"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만세"를 부를 때에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 만세!"라는 뜻입니다. 성경대로(수 9:9)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큰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하였습니다. 1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분히 여겼습니다. 본문에 "호산나"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을 하였으니 예수를 메시아(그리스도)로서 영접한 찬송입니다. 이 말을 고쳐서 읽는다면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그리스도)는 삼중 직분을 가지신 분이심으로 세 번 "호산나" 하였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선지자이십니다.

1)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2)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노에 생활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큰 매를 맞아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받은 타락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하였습니 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라는 하나님의 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6, 7)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임으로 그가 전하는 말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도(2, 6, 7)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충성된 선지자이십니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4, 5) 이 말씀은 구약사기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감옥의 고통을 치렀습니다. 모세는 임이 뻗뻗하여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의

숨(뜻)을 전하며, 타락한 왕을 책망하였는데, 요아스 왕은 자기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사가라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였습니다. (대 하 24:17-22) 예수는 충성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그것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 9:9)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하나님의 충성된 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충성된 선지자이십니다.

3)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0, 11)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날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2. "호산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라는 뜻

입니다.

1) 예수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5) 예수는 황금마차나, 철병거를 타셔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셔서 모든 평민(서민)들이 항상 만날 수 있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겸손하신 왕 예수는 오늘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가 교만으로 벽이 높으면 이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만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높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12) 예수는 경배받으실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을 시간 따라 찾아가야 합니다.

3) 예수는 왕이신데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16)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하여 "예수께 말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6)

예수께서 지위 높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찬송을 받지 않으시고 어린아들과 젖먹이들의 찬송을 받으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는 오늘날도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같은 순진하고, 겸손하고, 아무 티가 없는 성도들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겸손한 자들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왕이신 예수의 제자들이므로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 2:5-11)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배웁시다!

3. 셋째로 예수는 열심 있는 제사장입니다.

1) 예수는 성전으로부터 강도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12, 1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돌러 엮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12, 13)

예수님은 열심 있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을 수일 앞두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니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20)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한 열심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는 열심 있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2)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13, 16)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

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13) (참조/ 이사야 56: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6) (참조/시편 8:2)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구약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유일한 지침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딤후 3:15) 바울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집"입니다.

3) 예수님은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흥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예수의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참조/ 15, 16)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단자들이 주님의 양무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실천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9, 15)

1.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선지자이십니다.

2.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3. 예수님은 열심 있는 제사장이십니다.

drjho@hot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학부모, 학생, 주정부에게 주는 미연방 교육부 폐지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더 이상 미연방 정부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반기독교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념/아이디어를 교육할 학부모, 학생, 심지어 교사들에게도 강요하지 못하도록 “미연방교육부를 폐지” 시킨다고, 그가 이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야기한 약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즉, 미 연방정부가 정치적인 이슈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더 이상 학생들을 통제해서도 안 되며,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알맞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백악관에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발표한 것을 번역/의역했습니다.

첫째: “RETURNING EDUCATION TO PARENTS AND COMMUNITIES 교육을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돌려준다. 오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가정에 돌려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 이 행정명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미연방교육부의 폐쇄를 촉진하고 교육 권한을 주 정부에 반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미국인(AMERICAN)들이 의존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혜택에 효과적이고 중단 없는 제공을 계속 보장하도록 지시한다.

2. 이 명령은 교육부의 잔여 기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이 피부 색깔과 동성애, 트랜스젠더나 사회공산주의 이념에 집중한 DEI 또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더 이상 발전 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한다.

둘째: DISMANTLING BUREAUCRACY AND EMPOWERING FAMILIES- 미국안에 그동안 잘못 실행되어 온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미국 가족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유는) 연방 정부의 교육 통제는 모든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에게 실패했다.

1. 교육부는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79년 설립된 이후,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교육부는 표준화된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인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점수로 측정된 학생 성취도를 향상시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3 TRILLION (3조) 달러 이상을 “교육부” 아래 지출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교육부는, 추가 교육 자금으로 납세자들의 약 \$200 BILLION(2,000억 달러)나 되는 재정을 추가 교육 자금으로 지출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상당한 학습 손실을 고려할 때 현재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모델의 비효율성을 대 표적으로 보여주었다.

2. 1970년대 이후 미국 정부의 학생당 지출이 245%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의 수학 및 READING인 읽기 점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런 결과는 “더 많은 연방정부 지출이 더 효율적인 교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13세 아동의 수학 점수는 수십 년 만에 현재 가장 낮은 수준임.

13세 아동의 읽기 점수는 30년 전 시험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점점 더 뒤처지고 있는 상황의 리포트들.

2023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13개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에 능숙한 학생이 0명이었다. (*TVNEXT 추가조사: 확인해보니,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임. 총 32개 고등학교 중 13개 고등학교에서 수학 시험에 통과한 학생이 1명도 안나왔음).

3. 교육부는 너무 많은 REGULATION 규제와 서류 작업으로 학교에 부담을 주어왔다.

그동안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보내던 통보내용들은 학교가 원하는 이념적 사상 이니셔티브를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교육 자원을 재조정하도록 강요해왔다. 이런 강요적인 이념 이니셔티브는 교직원들의 시간과 관심을 학교의 주요 역할인 학생 아카데미 교육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왔다.

한예로, 바이든의 미연방 교육부는 무려 \$3.9 BILLION (39억 달러)의 비용과 4,239,530 시간의 (불필요한) 서류 작업 시간을 부과하는 규칙을 추가했다.

TVNEXT 추가설명: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아카데미를 가르치는 것보다, WOKE 와 DEI 같은 정치적 이념 사상, 반기독교적 사회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것에 납세자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썼기에 폐지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4. 납세자들은 더 이상 진보적인 사회 실험과 구식 프로그램에 낭비되는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연방교육부는

급진적 이념을 교육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보조금으로 \$1 BILLION (10억 달러) 이상을 낭비했다.

바이든의 교육부는 “성” 차별의 정의안에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GENDER IDENTITY.”를 포함하도록 확장하기 위해 이미 성차별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TITLE IX” 규정안에 트랜스젠더를 정상화시키는 문구를 포함시켜 법을 수정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까지도 인종 차별과 “GENDER IDENTITY.”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급진적 의제를 주정부들과 교육시스템에 강요해오던 COMPREHENSIVE CENTERS PROGRAM이라는 종합 센터 프로그램에게 보내지던 \$226 MILLION 2억 2,600만 달러의 GRANT 보조금을 취소했다.

세번째: FULFILLING PROMISES TO PARENTS AND STUDENTS: 학부모와 학생과의 약속을 이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학교와 교육을 주 정부로 되돌리기 위한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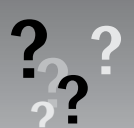
1.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을 원래의 주정부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2.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연설했을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저는 미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부모가 원하는 공립, 사립, 차터 또는 종교 기반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온전히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모들의 보편적인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때가 왔습니다. 교육을 주정부에 돌려주면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학부모에게 이 권리를 부여할 것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47대 대통령으로 재임 이후, 정부가 지정한 교육 시스템이 수백만 명의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실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족의 교육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 만이 하는 것이고 성도는 도고라고 하여야 하는지 를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중보기도는 중보자의 기도라면 교회에서 쓰고 있는 중보기도는 도고라고 말해야 하나요?

-뉴욕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중보기도란 단어

A: 중보기도란 용어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께만 한정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모범입니다. 사도 시대부터 AD 800년까지 ‘중보기도’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9세기에 와서 미사를 드릴 때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서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교황의 무죄설과 중보자란 호칭을 가지게 됐으며, 오늘날까지 로마교에서는 ‘중보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주교, 마리아, 성자(순교자)들을 중보자라 해 그들의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큰 절을 여러 번 하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의 중보자는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재자는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평행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자이고, 중보자는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수직적관계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유일한 구속적 행위자입니다. 오늘날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교회에 이미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도고란 말로 사용하면 어떨느냐고 질문했는데 도고를 영어로 Intercession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중재를 의미합니다. 도고기도라고 해도 좋고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기독교학 부학장인 김석한 목사는 중재자(intercessor)와 중보자(mediator)는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굳이 쓴다면 ‘중재기도’(intercessory prayer)라고 쓰는 것이 어떨느냐고 제안을 한다. 저도 이것이 좋다고 봅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아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일 예배: 오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 6:00(토) Tel: (516) 387-9940, 9942 (EM),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청년부 예배: 오후 12:0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Tel: (718) 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15분 주일학교 오후 1:15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장영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화: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nuri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3:30 주일학교: 오후 12:00 Tel: (54) 114-631-1788, AL,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7:00 수요일교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	--	---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 2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84, www.kfc.org 14 G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 620-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354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 762-2525, 5756, www.hyoos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sundogchurch.org 308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아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오전 5:45 전교인복합선언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6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일공기도회: 매일 새벽,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일영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 Tel: (604) 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장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e Joaquim Pla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l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 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온교회)



“책상 지성(Theoretical Intelligence)을 넘어, 현장 지성(Practical Intelligence)으로”

현대 기독교는 심각한 지성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신학적 담론과 지적 탐구는 활발하지만, 그것이 실제 삶과 연결되지 못하면서 신앙의 생명력이 약화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책상 지성(Theoretical Intelligence)이라 부른다. 신학은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논의되지만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

되지 못한다면 공허한 지식에 불과하다. 반면, 성경이 강조하는 참된 지성은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 삶에서 실천되는 ‘현장 지성(Practical Intelligence)’이다. 기독교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상 지성에서 현장 지성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책상 지성’은 주로 학문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집중한다. 조직신학, 성서 해석학, 교회사 연구 등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삶에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신앙은 단순한 사변적 지식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삶과 동떨어진 이론적 지식에 머물고 성도들의 신앙

이 일상과 분리된 이론적 머리 지식에 그칠 때 기독교는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책상 지성에 치우친 기독교는 신앙을 일종의 ‘엘리트주의’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 신학적 논쟁은 치열해지지만,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실천력이 떨어진다면 복음이 지

닌 본래의 ‘생명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신앙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피로감을 안겨줄 때 기독교는 더욱 고립될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장 지성(Practical Intelligence)’은 신앙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율법과 교리를 가르치는 데 머물지 않으시고 병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다. 현장 지성은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증명되는 신앙’이다.

현장 지성을 실천하는 기독교는 교리적 확신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사랑과 정의의 실천으로 드러난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문제에 응답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성의 길이다. 신앙이란 단순히 교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 탐구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장 지성은 탄탄한 신학

적 기초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 신앙이 실제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신앙 교육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들은 강단에서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독교는 본래부터 ‘살아 있는 신앙’을 지향해 왔다. 예수님께서는 지적 논쟁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을 가르치셨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상 지성(Theoretical Intelligence)을 넘어 현장 지성(Practical Intelligence)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앙이 머리로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손과 발을 통해 세상 속에서 증명될 때 비로소 복음은 온전히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백악관 고문 “10년간 관세수입 6조 달러” … 세금인상 부메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제 관리들은 관세 부과로 연간 6000억 달러(882조8400억원) 세수 증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수입은 고스란히 외국 수출업체들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관세는 통상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관세의 상당 부분을 물게 된다.



피터 나바로(사진)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지난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부과로 “연간 약 6000억 달러, 10년 동안 약 6조 달러(882조원)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일 발표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만으로도 연간 1000억 달러(147조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타임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20%의 보편관세 부과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10년간 약 6조5000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나바로 고문은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이 “중산층을 위한 미국 역사상 최대 감세”를 위한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WSJ는 1일자 사설에서 “현실 경제에서 관세는 세금”이라며 “연방정부가 연간 6000억 달러의 (관세) 수익을 올린다면 그 금액을 민간 경제의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WSJ는 관세가 세금이 된다는 가장 최근의 증거로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인한 자동차 가격 인상을 들었다. 또 트럼프 집권 1기 때 세탁기에 대한 관세 인상 이후 세탁기 가격이 거의 1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WSJ는 관세로 연간 6000억 달러의 세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세금 인상을 좋아하는 민주당도 이렇게 큰 폭의 세수 감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인들은 관세가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물가 상승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3월 소비자심리는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2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고 보도했다.

미국차 빅3 “저가부품 관세 빼달라” 막판까지 로비

미국 자동차 제조사 ‘빅3’인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에서 저가 부품을 면제받기 위해 막판 로비를 벌이



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입차 관세 부과를 앞두고 고위 임원들을 워싱턴DC로 파견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로비하고 있다”며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경영진은 백악관,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접촉해 저가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은 지난 3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드 창업자 헨리 포드의 증손자인 빌 포드 회장은 지난주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을 만났다. 이들의 면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 외국산 엔진·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는 2일 상호관세 발표에 이어 3일부터 수입 완성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 전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엔진 등 대형 부품의 관세는 감당할 수 있지만 수천 종의 외국산 저가 부품에까지 관세를 매기면 생산비용 급증과 영업 이익 급감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제조업 부흥 목표와 멀어지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노동 집약적인 전기 배선 피복의 경우 멕시코 등 저임금 국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어 관세 면제 요구가 강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애드먼즈의 제시카 폴드웰 인사이트 책임자는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취약성은 이미 반도체 부족 사태로 드러났다”며 “관세는 많은 부품을 조립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강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로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의 만남을 성사시킨 현대자동차그룹도 관세 장벽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현지 자동차 딜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금의 가격이 계속 보장되지 않으며 2일부터 도매되는 제품 가격은 변경될 수 있다”며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파커는 “관세는 쉽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미국 투자에 확실히 발을 디뎠다.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지진에 방콕 고층 빌딩 왜 무너졌나

태국 정부가 미얀마 지진 당시 무너진 방콕의 고층 빌딩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결과, 빌딩 공사에 표준 이하의 철근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빌딩 붕괴 현장에서 수거한 철근을 태국 철강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질량, 화학 성분, 강도 등에서 기준치에 미달했다. 태국 산업부 관계자는 붕괴된 빌딩에 사용된 철

근은 지난해 12월 폐쇄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철근 이미지에는 태국 라용주에 공장을 둔 중국 기업인 신커위안철강이 만든 브랜드 ‘스카이’가 표시돼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 12월 가스 탱크 누출 사고로 인해 폐쇄됐으며 2400t 이상의 철강을 압수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장이 가동 중단 명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을 때 태국 수도 방콕에서 건축 중이던 고층 빌딩이 무너졌다. 당시 붕괴 사고로 최소 1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80명 가까이 매몰됐다.

방콕에서 미얀마 지진의 영향으로 무너진 고층 건물은 이 빌딩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약 45%의 완공률을 보이던 이 빌딩의 부실 공사 가능성이 제기됐고, 태국 정부는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 붕괴된 빌딩은 방콕 명소 짜뚜팍 시장 인근에 건설 중이던 33층 높이 건물로 태국 감사원 청사로 쓰일 예정이었다. 시공사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회사인 ‘중국철도 10호’의 태국 현지 합작법인과 ‘이탈리아-태국 개발(ITT)’이다. 중국철도 10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 중 하나다.

트럼프 벌써 레임덕?…30%p 압승한 지역구서 고전하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내각 합류로 공석이 된 보궐선거들이 잇달아 치러진다. 하지만 공화당 강세 지역구에서조차 민주당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미 일부 주의보 보궐선거에선 민주당이 이변을 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다. 트럼프 취임 2달여 만에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하자 공화당 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내달 1일 플로리다주 1선거구와 6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1선거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다가 논란 끝에 사퇴한 뒤 의원직에서도 물러난 맷 게이츠 전 의원의 지역구였으며 6선거구는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역구였다. 두 지역구는 모두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다.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1선거구와 6선거구에서 각각 37%포인트·30%포인트 격차로 대승을 거뒀다.

문제는 6선거구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추격세에 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 성향 조사기관인 파브리지오 워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 출신인 조시 와일 민주당 후보는 44%를 얻어 주 상원의원 출신인 랜디 파인 공화당 후보를 3%포인트 차로 앞섰다. 모금액도 3월 중순까지 와일은 거의 1000만 달러를 모은 반면 파인은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친공화당 성향 단체들이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전 의원이었던 월츠 보좌관이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에 제프리 골드버그 디 애틀랜틱 편집장을 초대하고는 예민 공격 사실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은 더 나빠지고 있다.

공화당 내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 하원에서 218석으로 정확하게 과반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1~2석만 잃게 되더라도 민주당으로 하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엘리스 스테파니 하원의원에 대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을 철회했다. 스테파니는 민주당세가 강한 뉴욕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올해 주의회 선거에서 선전한 바 있다. 1월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가 20%포인트 차로 이겼던 선거구에서 4%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이달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승리한 선거구를 탈환했다.

‘불의 고리’ 꿈틀… 남태평양 통가 해역 규모 7.0 강진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이 30일 관측한 지진 발생 지점은 통가 광가이 북동쪽 79km 해역이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측정됐다. 지진은 한국보다 4시간이 빠른 통가 현지시간으로 31일 오전 1시 18분쯤 발생했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는 진앙에서 300km 안에 있는 해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통가는 호주 동쪽, 뉴질랜드 북동쪽 남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섬나라다.

통가는 지진과 화산폭발이 빈번한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한다. 미국·멕시코·칠레 서해안,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가 ‘불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통가는 2022년 1월 인근 해저화산 분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수도 누쿠알로파 북쪽 65km 해역에 위치한 해저화산 통가룽가하파이 분화는 위성사진에 포착될 만큼 강력했다.

英국왕, 韓 산불 피해 위로 “어머니 환대받았던 곳”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26년 전 경북 안동 방문을 언급하며 영남 일대 산불 피해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찰스 3세 국왕은 30일 주한 영국 대사관에 보낸 위문문에서 “아내(케릴라 왕비)와 나는 산불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1999년 어머니가 국민 방문했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보내준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4월 한국을 국민 방문했고, 안동 하회마을에서 생일상을 받았다.

찰스 3세는 “산불의 피해 규모와 주민들의 고통,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을 가능하기 어렵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보내고 집을 잃은 모든 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한다”며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용감한 응급 구조대원들과 지역 사회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발한인장로교회)

인생의 마지막 숙제(Last Homework of Life)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Prophecy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인간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각자가 태어난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러 가거나 약국에 약을 찾으러 가면 생년월일을 묻고 본인인 것을 확인부터 합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 없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예정일을 추측할 수 있지만, 죽는 날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에 죽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에 참석해 위로하지만 정작 나의 죽음은 애써 무시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인생의 숙제를 풀지 못한 채 후회하는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삶의 답을 아신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죽음과 삶의 답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장사 되었고, 성경대로 장사 된 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고전 15:3,4).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죽음이 그를 묶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독특성은 대속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에만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더라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고전 15: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사(四)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은 가장 명료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고해 오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The Cross and Resurrection are the Gospel)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파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른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고전 1:23,24).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증거 하였습니다(행 1:22).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없어질 것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오직 땀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벧전 1:18,19).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임을 알고 그 은혜에 의존함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벧전 1:3).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능히 감수할 것입니다(빌 3:10,11).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한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내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절정이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성경대로 장사 된 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답은 십자가와 부활이다(The Last Answer of Life is the Cross and Resurrection)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본능은 죽음에 대한 생각조차 하기 싫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자손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자로서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남아 있는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권면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자녀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기억으로 평생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할 일인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서 죽음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고 있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친척, 친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숙제인 죽음을 만나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삼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 인생의 마지막 숙제인 죽음을 부활의 소망으로 풀어 인생은 죽어야 부활한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ITS 교수)

생명의 힘

우리 집 뒷마당에는 과일 나무 몇 그루가 있다. 이십 년 전 이사 올 때는 구아바 나무와 무화과 나무만 있었다. 작은 마당이지만 그 후로 나무 몇 그루를 더 심었다. 비료를 안주어서 그런지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성경의 무화과처럼 앞만 무성하고 열매가 달린 후에는 말라서 떨어지곤 해서 베어 버렸다. 그러나 별로 돌보아 주지도 못하는 구아바 나무는 해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몇 년 전에는 자몽을 사서 심었는데 뜻밖에 포멜로가 열렸다. 자몽보다 포멜로를 더 좋아하는 나에게는 주렁주렁 달린 포멜로를 따 먹는 재미가 심심찮게 크다. 십여 년 전에 심은 살구나무는 막내가 대학원을 졸업하던 해에 축하라도 하듯이 첫 열매 몇 개를 선보이더니 그 후로는 꽃만 피고 살구는 한두 개 열리다 말고 떨어진다. 그러나 가지는 속속 잘도 자라서 담을 넘어 옆집으로 마구 뻗어간다. 긴 전지 가위를 사서 옆 집으로 간 가지를 힘있게 자르다가 가위가 망가져버렸다. 올해도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전지를 해주어야 할 텐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잔디를 깎는 아저씨가 와서 부탁을 했다. 아저씨가 잘라낸 가지를 쓰레기통에 넣다 보니 꽃이 핀 가지들이 몇 개 있었다. 봄이 왔다고 잎이 나기 시작하고 꽃을 피운 것을 마구 자른 것이다. 잘린 나무 가지가 마치 "아야, 아야!"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꽃을 피운 가지를 쓰레기통에 던져 버릴 수는 없었다. 미안한 마음에 꽃이 달린 가지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식탁 위에 꽃아 놓았다. 살구나무 가지에 달린 꽃 몇 송이는 자기로 만든 꽃병과 잘 어울렸다. 동양화에 나오는 그림처럼 그런대로 운치가 있었다. 며칠이 지나니 꽃들은 힘없이 떨어지고 이제는 파릇파릇 잎들이 돋아나고 있다. 생명의 근원인 나무에서 떠나 물속에 담겨 있는데도 파랗게 돌아나는 잎들을 보니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어야 할 것만 같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힘이 안스러우면서도 놀랍기 때문이다.

꽃병에 꽂힌 채 썩어 트는 살구나무 가지를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언니를 닮았기 때문이다. 언니가 영양소 흡수에 없어서는 안될 소장 전체를 잃어버리고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기 시작한 지도 이년이 되었다. 정신도 맑고 식욕도 정상이지만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병원에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외출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곳저곳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던 때는 이제 언니에게 아득한 추억이 되었다. 기적 이외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언니는 생명을 붙들고 있다.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까? 정상 체중의 반밖에 안 되는 몸으로 버티어 내는 언니가 너무 안타깝다.

오늘 아침은 봄비가 차분히 내린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멜로 나무에 향기가 나는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주인을 잘 못 만나 비료 한번 제대로 못 주어도 해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포멜로 나무를 바라보며 그 강한 생명의 힘이 언니에게도 임하기를 바래본다. 뿌리에서 절단된 가지에서도 싹을 틔우는 살구나무의 집요한 생명의 힘으로 몇 년 만이라도 더 버티어 주기를 기도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역경 속에서도 돌아나는 새싹처럼 우리가 생명을 입어 살아가는 것을 응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봄이 지닌 생명의 힘이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기도한다. 사순절이 지나면 곧 부활절이 다가올 것이다. 죄로 인한 고통과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나 죽음 뒤에 감추어진 생명의 신비가 우리가 믿는 부활의 능력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가슴 깊이 감사로 다가온다.

linda.pyun@itsla.edu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3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6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금요영양예배: 오전 7: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laipusa@yahoo.com / www.laipc.com Tel: (323) 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단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월-목요일 예배): 오후 2:00 영아예배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c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da.org 170 Bir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아회중: 오전 9:00, 11:00 일일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 854-4010 / belhel@b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 (213) 388-1927 / www.wmccs.org / worldmissionchurch8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빌즈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8,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지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상당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3부: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212)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목: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아예배 (영아/청년): 오전 11:45 송고찬양예배: 오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 (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E-용모로움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일 새벽 2:20-3:30 목요 거리기도회: 오전 9:00 TEEE-성경을 읽는날(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9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모든 것이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세운교회 20년을 회상하며

제 나이 49살에 담임목사로 부임했던 주님세운교회에서 이제 20년을 묵회하고 원로목사가 되어 지난날을 회상하니 “모든 것이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눈물의 고백만 나옵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John Piper)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기뻐하라(Desiring God)”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이 예수

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존 파이퍼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세운교회 20년 역

사 속에 했던 수많은 설교 중에 빌립보서 1:20-21 ‘바울의 위대한 소원’을 제일 좋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이 저와 목회의 일생을 붙들고 있었습니

다.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 쳤습니다. 둘째,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의 모든 이력과 묵회에서 예수님만 존귀히 되기를 원했습니다. 셋째,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의 고 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날마다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선교 열정이 뜨거운 교회, 순교 신앙으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 세계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는 교회, 어둔 세상에 정의를 구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우려고 밤낮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세운교회 묵회 20년을 돌이켜 보니 제 열심만 특신했지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은 낙제점수 밖에 못 받을 것 같아 고개가 숙여 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교회를 천만 배 더 사랑하신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다” 라는 것은 묵회하면서 더욱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후임자를 위해 기도한 일천 번제 새벽기도회 응답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말씀의 종, 기도의 종, 고난 속에 정금같이 연단 받은 신용환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종이 로마타 성전을 세우고 입당한 뒤 몇 년 되지 않아서 한국 대구 초대형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 요청을 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통곡하며 “제가 사랑하는 양무리는 주님세운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지금까지 주님세운교회 성도들을 지킨 것을 주님께서 훗날 칭찬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북풍한설 눈보라 속에 태산준령을 넘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십자가 지며 주님의 사랑을 안고 함께 교회를 지키고 세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상으로 분별 값아 주실 줄 믿습니다.

songkpak@hotmail.com

일본 무목교회를 위한 선교세미나 열린다

“현해탄을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시드선교회(국제대표 박신욱 목사)는 지난해 남가주지역에

서 박영기 선교사(일본)를 강사로 초청, ‘일본 무목교회를 위한 선교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금년에는 오는 5월19일(월) 오전 10시 북가주 소재 산호세한인장로교회(담임 박석현 목사)/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에서 제 2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시드선교회 스태프들은 “지난해 열린 첫 세미나를 통해 5분의 선교사가 일본 무목교회에 관심을 갖고 단기선교팀을 구성, 직

접 일본을 방문해 선교사역에 헌신했다”고 들려주며 일본 무목교회 중 하나인 후레나이 교회를 소개했다.

“후레나이 지역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면서 주민 수가 2천명으로 급감한 곳이다. 지금은 3-4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묵회하는 일본 목사님이 가끔 주일에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는데 10명 정도 성도가 모인다”고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본에 있는 모든 무목교회에 목자를 보내주시길 것을 기대 한다”며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세미나에는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없다. 다만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자세한 것은 (562)926-4700 또는 seedwo@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KWMC, MK 장학생 선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orean World Mission Council, 이하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는 매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다. 이는 선교 현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선교사 자녀들이 학업 목표를 이루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

남가주든든한교회, 라크마챔버코랄 찬양집회 성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자”



남가주든든한교회 사순절 찬양집회에서 라크마합창단원들이 시편 150편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홍철 목사)는 28일(금) 저녁 7시 라크마챔버코랄(음악감독: 지휘 윤임상 목사) 초청,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주제로 사순절 찬양집회를 개최했다. 김홍철 목사의 인사말에 이

어 윤임상 목사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어 감사하다. 이 자리는 찬양의 자리이다. 한 가지 부탁은 찬양할 때 음악성을 보여주고 하지 말고 찬양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그 안에 담겨있는 신앙고백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에 오른 단원들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시편 150편을 오프닝 찬양으로 들려주었고, 윤임상 목사는 ‘최고의 선물’(갈 6:14)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량이며 최고의 선물이다. 아름다운 포장지 대신 수난에 쌓여 찾아온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찬양집회는 ‘경배와 찬양’, ‘그리스도 수난의 현장들’, ‘인도와 보호’, ‘부활과 영생’ 등 4막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오위영 목사는 솔로 곡으로 ‘힘찬 십자가 능력 있네’를 들려주었다. 이날 음악회는 참석자들의 성원에 따라 앵콜곡으로 ‘참 좋으신 주님’을 들려주며 막을 내렸다.

<이성자 기자>



미주평안교회 창립 50주년기념 부흥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노진준 목사

미주평안교회 창립 50주년 부흥집회

“우리의 사명은 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는 창립 50주년 부흥집회를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노진준 목사(Predaching Coaching Ministries 공동 대표)를 강사로 초청했다.

토요일 저녁 6시, 박병열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둘째 날 저녁 집회는 이정환 장로 기도, 노진준 목사 설교, 임승진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노 목사는 “그리스도의 일군들”(엡 3:1-9)이란 제목으로 “



시애틀형제교회 선교 30일 플러스 선교집회에서 다니엘 뉴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대 사명인데 대 사명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은 교회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며 살아야 한다”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자신의 죄를 인식해야 하고 회개함과 더불어 죄를 극복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점진적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르겠다고 고백한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내 상황이 어떠한 내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에 감사한다는 고백이어야 한다”며 “우리의 사명은 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교회는 복음의 빛을 들어내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0주년을 맞는 미주평안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교회의 간절함과 진실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군으로 삶을 살아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해야 한다.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주평안교회는 1대 목사인 황의영 목사와 성도들이 1975년 1월 5일에 창립 해, 2대 강신권 목사. 3대 송정명 목사가 섬겼으며 현재 4대 목사로 임승진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본 교회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로, 부흥집회를 비롯해 4월20일(주일) 임직식과 음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문의는 (213) 381-2202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시애틀형제교회 선교 30일 플러스 선교집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선교 30일 플러스 선교집회를 지난 3월21일(금)부터 4월13일(주일)까지 개최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권준 목사의 사회로 지난 23일(주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집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파시픽 신학대학원 교수)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제자를 삼는 제자)(마28:18-20)’라는 제목으로 교회와 선교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나눴다. 다니엘 뉴먼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강조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왜 나왔을까?”라고 질문한 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뉴먼 목사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제2차 준비기도회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4월 14일(금) 오전 10시30분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시무)에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제 2차 준비기도회를 가진다.
▲ 문의: 718-279-1414

예사랑교회 손한권 원로목사 추대 및 운영환 담임목사 취임식
예사랑교회(담임 손한권 목사)는 4월 20일(주) 오후 5시, 손한권 원로목사 추대 및 운영환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진다.
40-22 158 St Flushing, NY 11358
▲ 문의: 347-753-4551

퀸즈장로교회, 부활절 찬양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4월 20일(주) 오후 4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주제로 부활절 찬양제를 연다.
▲ 문의: 718-886-4040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예식 후 사진 촬영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예식 개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나라를 위한 헌신”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노기송 목사)는 3월 26일(수) 오전 10시,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시무)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예식을 거행했다.

예식에 앞서 드린 경건회는 김영환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시작 돼, 정권식 장로(부회장) 기도와 주승용 장로(부회장)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어 미주총회장 김명옥牧사는 ‘그에게로 돌아가자(롬 11:33-36)’라는 제목으로 “이승만 박사는 한성 감옥에서 5년 4개월간 수감 생활 중 하나님을 만나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며,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건국 정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 것이다.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황일봉 장로의 헌구 특주와 권케더린 목사(서기)의 헌구 기도가 있었으며, 황동익 목사(미주총회 이사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기념식에서 노기송 목사(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150년 전 이승만 박사를

조선 땅에 보내주신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강조하며 “한성 감옥에서 수감 생활 중이던 이승만 박사가 29세의 나이에 불과 4개월 만에 ‘독립정신’이라는 저서를 집필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전했다. 이어 김의환 뉴욕총영사, 이명석 뉴욕한인회 회장, 유지희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회장, 이청일 박정희기념사업회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날 마영애 대표이사는 아코디언 연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연주했으며, 참석자들은 손을 맞잡고 함께 부르며 통일을 간절히 기도한 뒤, 임형빈 한미총교회 회장의 인도로 만세삼창이 진행되었으며, 전희수 목사(부회장)의 폐회 기도로 마쳤다.

한편, 이장호 감독의 이승만 박정희 기록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이 4월 15일(화) 프라미스교회에서 공식 상영된다. 뉴욕에서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뉴저지에서는 오후 7시에 상영될 예정이다. 공식 상영에 앞서 4월 14일(월) 오후 4시 프라미스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사회가 열리며, 시사회 강사로 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이장호 감독이 참석한다. 입장료는 20달러다.

(홍현숙 기자)



한미총교회 회장 임형빈 장로, 출판기념예배 후 사진 촬영했다

한미총교회 회장 임형빈 장로, 출판기념예배

한미총교회 회장 임형빈 장로는 지난 29일 좋은세앗교회(임용수 목사)에서 ‘세월은 가건만’ 출판기념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임용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정훈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가 기도, 허연행 목사(뉴욕교협 회장)가 ‘화살 같은 인생 (시 127:4-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허목사는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 안에 있는 화살

과 같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형빈 장로는 90세에 첫 출판을 시작해, 한 세기 동안 나눔과 섬김의 삶을 기록한 ‘세월은 가건만’을 출판했다. 꿈꾸는 사람은 늙지 않으며, 다만 익어갈 뿐이다. 앞으로도 건강 주시는 한, 다음 세대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방한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욕원로목사회 회장 송병



새로운개혁신교회, 통합·창립 감사예배를 드린 후 사진 촬영했다

새로운개혁신교회, 통합·창립 감사예배 드려

“새로운교회와 뉴저지개혁장로교회 하나 되어 새 출발”

새로운교회와 뉴저지개혁장로교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개혁신교회’로 출범하며, 지난 30일(주일) 오후 4시 Leonia High School에서 통합·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도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새로운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 돼, 기도는 김도완 목사, 성경봉독 고경순 권사가 맡았다. 이어 최문선 목사(KPCA 중앙노회 전 노회장)가 ‘위의 것을 찾으라(골 3:1)’라는 제목으로 “새로운개혁신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잡힌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복음에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며 “담임목사의 목회 리더십 아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했다.

이어 김동오 집사의 교회 통합의 경과보고와 송유희 권사가 뉴저지개혁장로교회의 역사, 서윤희 권사가 새로운교회의 역사를 소개하며 두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또한 뉴저지개혁장로교회를 개척한 조문선 원로목사의 회고와 축하영상, 그리고 김병용 목사의 축

하 메시지를 통해 교회 통합과 창립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겼다.

김경수 목사(KPCA 부총회장)는 “통합을 이루어낸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을 축하하며, 새로운개혁신교회가 앞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한 후, 담임목사로 김도완 목사를 추대하는 순서를 진행했다.

김도완 목사는 “새로운개혁신교회의 창립을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명으로 여기며, 다음 세대에 복음의 횃불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통합에 기여한 이요한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곧달목사로 추대된 이요한 목사는 김도완 목사에게 열방을 품고 나가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구본을 전달했다. 이후 중·고등부 4중주의 축하 연주가 예배의 감동을 더했으며, 모든 순서는 김도완 목사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뉴욕교협청소년센터, 청소년 봄 부흥집회에 찰스정 목사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욕교협청소년센터, 청소년 봄 부흥집회

찬양으로 가득했던 청소년 부흥집회를 마치고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는 3월 28일(금) 오후 7시 뉴욕신광교회(강주호 목사 시무)에서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서 청소년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영적 목마름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Paul Yoo(뉴욕늘기쁜교회)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집회는 기도 Pastor Joseph (뉴욕신광교회), 찬양 Liberator(그루티교회), 설교 찰스정 목사(Redeemer Church Downtown)가 탕자의 비유(눅 15:11-32)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정 목사는 인간은 본

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한다”며, “오늘날 젊은 세대는 스스로 정체성을 선택하고 진정성을 추구하지만, 때론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작은아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방황했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큰아들은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보고 분노하며, 자신의 행위와 가치를 증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인간이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비교의식이나 교만에 빠질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강주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가을 집회는 9월 19일(금) 오후 7시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할렐루야 대화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대간 영적 연합과 부흥의 역사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사제공 뉴욕교협청소년센터)



뉴욕교협, 2025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준비기도회 후 사진 촬영했다

뉴욕교협, 2025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준비기도회 개최

“부활’과 ‘다시’가 연결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3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뉴욕예은교회(김명옥 목사 시무)에서 2025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준비를 위한 제1차 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기도회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통해 뉴욕 교계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자리였다.

예배는 김경열 목사(부활절 준비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전희수 목사(여성분과위원장) 기도, 김일태 장로(수석협동총무) 성경봉독, 김용익 목사(장학위원장) 설교로 이어졌다. 김용익 목사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마 28:1-10)’를 주제로 “심자가와 부활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셨음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님은 심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스스로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심 기도 시간에는 △손성대 장로(부회장)가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위해 △이종명 목사(이단분과위원장)가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 △박진하 목사(건물관리위원장)가 뉴욕

교계와 목회자들의 각성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마지막으로 김용걸 신부(공동자문위원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경과보고에서 김명옥 목사(총무)는 “회장 허연행 목사는 탄자니아에서 선교 중”이라며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여 부활절을 계기로 교회가 하나 되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했다”고 전했다. 김명옥 목사는 “‘부활’과 ‘다시’가 연결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부활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경열 목사(부활절준비위원장)는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뉴욕 교협과 교회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며 “부활절을 통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으며,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는 1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더 많은 교회의 참여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 모든 순서는 김영철 목사(홍보분과위원장)의 폐회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저지하베스트교회 정선악 담임목사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뉴저지하베스트교회, 정선악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뉴저지하베스트교회는 3월 30일(주) 오후 4시, 정선악 담임목사의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뉴저지노회와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던 정선악 목사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했다.

정선악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이 자리에 섰다”고 고백하며,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함께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예배는 정철 목사(임시당회장)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이용훈 장로(뉴저지노회 장로부노회장)의 기도가 이어졌다. 강신균 목사(뉴저지노회 노회장)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삶과 사역(살전 2:4-10)’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지키며,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또한 성

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며,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부모의 영성을 갖추어 성도를 온유하게 섬기고 진리로 보호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악 목사는 담임목사로서 사약을 했으며, 교인들도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김후준 장로(당회서기)가 취임패를 증명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고, 송민호 목사(토론토 영락교회 원로목사)와 박병곤 장로(토론토 영락교회 교우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 목사의 사역을 축하하며 기도로 동역할 것을 다짐했다. 홍인석 목사(뉴저지노회 목사부회장)는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으며, 변지환 집사가 축가를 불렀다. 당회서기 김준후 장로는 “지난 1년간 광야의 시대를 보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며 기대를 전했다. 모든 순서는 정석진 목사(직전 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헨리아펜젤러 임봉대 총장 저서 '역사와 예언' 출판기념회 참석자들



신승훈 목사가 2025 생수부흥회에서 설교한 뒤 청중들과 찬양하고 있다

헨리아펜젤러 임봉대 총장 저서 '역사와 예언' 출판기념회

“매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맡겨진 사명을 전해야”

헨리아펜젤러 임봉대 총장 저서 '역사와 예언' 출판기념회가 3월27일(목) 오전 10시30분 만나교회(담임 남강식 목사)에서 열렸다. 오정택 목사(헨리아펜젤러대 교목실장)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조현영 목사(헨리아펜젤러대 부총장/큰빛감리교회) 기도, 남강식 목사(헨리아펜젤러대 이사)가 "학자의 혀"(사 50: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남강식 목사는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스승과 제자로 하나님과 백성을 묘사한다"며 "좋은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의 길을 가기를 요구한다. 백성에게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힘을 주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깨우치

고 분발하여 '종이 들겠나이다'라는 자세로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며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 여호와의 종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서 이 땅의 마지막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였다.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영광보다는 고난의 인내일 것이다. 매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맡겨진 사명을 전해야 한다. 임 총장님의 저서가 우리를 자극하고 일깨우고 도전 준다. 그의 평생의 삶을 울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관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와 정인호 목사(전총장/예수마을교회 담임)가 축사, 임봉대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희 목사(미라클교회 원로)의 축도로 출판감사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생수의강선교교회 2025 생수 부흥회

“말씀을 붙잡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자”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최형규 목사)는 2025 생수 부흥회를 3월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주제로 열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최형규 목사 사회로 30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 시작된 집회는 문기상 집사 기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어 이번 집회 강사로 초청된 신승훈 목사가 '그러오라(수 18: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승훈 목사는 "본문에서 회막을 세웠다는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차지할 땅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고 제비를 뽑아 분배했으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라며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믿음이 들어오면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 말씀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 충만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각자의 산지가 있을 것이다. 건강, 자녀, 사업, 사명감당, 성령충만, 복의통로 되는 것 등이다. 말씀 안에서 그림을 그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게 산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신승훈 목사가 찬양인도와 결단의 기도 인도를 한 뒤 최형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주님세운교회 은혜의 20년 책자 발간 감사예배에서 감사트로피를 신용환 목사가 들어올리고 있다

주님세운교회 은혜의 20년 책자 발간 감사예배

“지나온 역사와 미래에 함께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세운교회(담임 신용환 목사)는 은혜의 20년 책자 발간 감사예배를 23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용환 목사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영상소개, 신용환 목사와 신현아 사모 특송, 신용환 목사의 '지나온 20년 나아갈 20년(고후 1:12, 시 84:6-7)' 제목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신용환 목사는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는 내용이다. 본문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과 같다"며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으로 삼은 것은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둘째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라 말하며 "매일매일 강단에서 별가벗은 마음으로 부끄럼질 않게 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교회는 주일출석 100명 이하 교회가 74%이다.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나게 된다"라며 "주님세운교회가 눈물골짜기를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샘물골짜기로 인도하실 것이다. 시온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세운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혜의

20년 책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규 원로목사는 "책자를 만들 때 마음 아픈 일이 많이 떠올랐다. 하지만 신용환 목사의 격려로 책 제작 작업이 시작됐다. 주님세운교회 역사 속에 그리고 미래에 함께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책자를 만들고자 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세월 속에 갈등 속에 있었던 옛 교인과 화해하게 된 것이다. 편찬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편찬위원들의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은혜의 20년 책자 편찬위원들에게 편찬 감사 트로피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신용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하와이서 열린 이승만 박사 탄신 150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탄신 15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3월 22일(토)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한인 기독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동지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재단, 하와이 한인회가 공동 주최하고 평통 하와이협의회, 한미동맹 USA재단, 한인문화회관, 한국자유총연맹하와이지부, 밝은사회국제클럽, 각군 동지회 및 많은 한인단체들이 후



베이커스필드 지구촌교회 김준태 제4대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베이커스필드 지구촌교회 취임감사예배

4대 김준태 담임 목사 취임

베이커스필드 지구촌교회는 지난 3월 16일(주일) 오후 5시 김준태 제4대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용기 목사(프레즈노 한인침례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취임예배는 박성철 목사의 기도 후 안상희 교수(Gateway 신학교)가 "바울의 영웅,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용기 목사의 인도로 이어진 취임 서약과 취임 공포 후, 남가주지방회 회장 서종학 목사의 축사(영상)와 베이커스필드 교역자협의회 회장 고의용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강승수 목사(총회 총무)의 권면사에 이어 안상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베이커스필드 지구촌

교회는 1988년 5월 김재현 목사가 개척하였으며, 이후 맹창호 목사(2대)가 약 28년간 목회하였고, 김재영 목사(3대)가 선교사로 지원하면서 김준태 목사를 제4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게 되었다. 김준태 목사는 늦은 나이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게이트웨이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마친 후, 메테스다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의 공주국립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물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평신도로 사역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다.

(기사제공: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교회)

의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교회 우남홀에서 이승만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다큐멘타리가 상영되기도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하와이서 열린 이승만 박사 탄신 150주년 기념행사(사진제공 김재원 목사)

서부교계 게시판

에브리데이교회 26주년 창립기념주일예배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손창민 목사)는 26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6일(주일) 1-3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그리고 임직감사예배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818)832-6628

새노래 선교합창단 창단 1주년 감사 찬양예배

새노래 선교합창단(지휘 이경원 집사) 창단 1주년 감사 찬양예배가 6일(주일) 오후 5시에 한빛교회(담임 고광훈 목사) 본당에서 갖는다. ▲ 문의: (714)670-6778

월서연합감리교회 46주년 창립감사주일 및 임직식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는 46주년 창립감사주일 및 권사, 집사 임직식을 6일(주일) 오전 11시 45분에 갖는다. ▲ 문의: (323)931-9133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 52주년 부흥회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 목사)는 창립 52주년 부흥회를 '복의근원, 축복의 통로(창 12:2)'라는 주제로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진재혁 목사(케냐 선교사, 전 지구촌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 일정은 4일(금) 오후 7시30분, 5일(토) 오전 10시 직분자 세미나, 오후 7시30분, 6일(주일) 1-3부 예배이다. ▲ 문의: (512)454-1727

새생명교회 창립 17주년 및 통합감사예배

새생명교회(지성은 목사 76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창립 17주년 및 통합감사예배가 6일(주일) 오후 4시에 개최된다. 새생명교회는 금년부터 그루터기 교회와 통합하고 노스릿지에 있는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이날 통합감사예배에서는 지성은 목사가 설교하고 정용치 목사의 축도, 감리교 은퇴목회자들로 구성된 은빛중앙단의 찬양이 있을 예정이다. ▲ 문의: (818)489-7651

라스베가스장로교회 사경회

라스베가스장로교회(담임 정공필 목사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는 사경회를 '십자가와 구속, 믿음과 은혜'라는 주제로 6일(주일)부터 8일(화)까지 개최한다. 이번 사경회의 강사는 구경서 목사(버지니아 생명수장로교회)이며 일정은 6일(주일) 오전 9시30분, 11시, 오후 7시30분, 7일(월)과 8일(화) 오후 7시30분이다. ▲ 문의: (702)742-3324



미주복음방송 나눔On 지원금 전달식에서 한기홍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 나눔On 지원금 전달식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는 지난 3월 21일(금) 오전 11시 나눔On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나눔On 캠페인은 2020년 팬데믹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지역사회 내 선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지의 이웃을 돕는 사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나눔On 프로젝트'로 발전하여 자선콘서트와 공개모금 생방송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콘서트에는 '손경민 목사'와 'The 은혜 워십팀'을 초청하여 2월 14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남가주 지역 6개 교회에서 '2025 나눔On 희망On 자선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2월 19일(수)에는 9시간 동안 진행된 공개모금 생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모았다. 그렇게 모인 총

175,000달러의 소중한 나눔은 LA 산불 피해 지원(\$50,000), 전쟁 난민 지원(\$30,000), '동행과 상생' 프로젝트(\$20,000), 지역사회 공헌단체 지원,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컨퍼런스 지원에 쓰이게 됐다. 미주복음방송 김병호 목사와 엘라곤 목사의 사회와 기도로 진행된 전달식에서 한기홍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며, 주변에 나눔 사람들을 허락하신다"고 강조하며, "나눔On 프로젝트를 통해 오병이 어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목사는 "6년째를 맞이한 나눔On 프로젝트를 통해 100만 불이 넘는 모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미주복음방송은 앞으로도 크리스천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다해, 각 사역단체를 소개하고 청취자들과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2000년 전 성경 속 이야기

관객참여형 연극으로 살어나

2000년 전 역사의 현장을 즉흥극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캠프가 열린다.

오는 25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되는 ‘2025 플레이캠프’는 성경극, 찬양과 즉흥극을 통해 성경 속 인물과 이야기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 캠프는 관객참여형 연극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훈련은 이원승 연출가가 창시한 ‘로고스 플레이’ 이론을 적용한다.

로고스 플레이는 성경 속 극적인 이야기를 의상, 동작, 대사 등 극의 형식으로 해석하는 독창적인 성경 학습법이다. 관객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성경 내용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 속 인물로서 직접 역할을 맡게 된다. 캠프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훈련을 받은 후 다음 날 진행되는 연극에 배우

론을 적용한다. 로고스 플레이는 성경 속 극적인 이야기를 의상, 동작, 대사 등 극의 형식으로 해석하는 독창적인 성경 학습법이다. 관객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성경 내용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 속 인물로서 직접 역할을 맡게 된다. 캠프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훈련을 받은 후 다음 날 진행되는 연극에 배우

로 참여하게 된다.

이 연출가는 1일 서울 종로구 디마테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플레이캠프와 즉흥극 ‘비아 크루치스’를 소개했다. 라틴어로 십자가의 길을 뜻하는 비아 크루치스는 2년 전 처음 시작된 관객참여형 즉흥극으로, 예수가 십자가 사형을 받는 재판장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관객들은 훈련받은 15명의 배우와 함께 유대 의상을 착용하고 예수의 십자가 과정을 따라가며 극에 참여한다.

이 연출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룬 이 연극은 축제 무대이기에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을 기념하고자 한다”며 “관객들이 극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아 크루치스를 단순히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진 예배로 발전시키지 않고 공연 형식으로 유지한 이유는, 이를 통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영훈초는 2019년부터 본부와 함께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을 실시하며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장기기증의 의미를 배우고,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올해 45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영훈초는 지금까지 누적 후원금 310만 원을 기부하며 장기부전 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해왔다.

김대권 영훈초 교장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나눔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번 후원이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상임이사도 “7년째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온 영훈초 학생·학부모·교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다”며 “이번 후원이 마중물이 되어 교육 현장에서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은 투명하게 NGO 단체 등에 기증했다. 잔액은 지난해 9월 열린 해운대 성령대집회 헌금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박 목사는 “12명의 국장과 50여명의 스태프들이 초교파적으로 협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들은 보상 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매일 모여 준비하고 있다. 이런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장과 스태프들도 “형님이 한다면 돕겠다”라며 박 목사의 ‘형님 리더십’에 동참하고 있다. 박 목사는 “내리사랑이다. 내가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며 후배 목사들에 대한 의리와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합창과 성악가 공연 등 식전 행사로 시작한다. 예배는 간결하게 진행하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합심 기도도 각 단체 대표들이 나와 ‘대한민국을 위해’ ‘부산을 위해’ ‘교회를 위해’ 3가지 기도를 드린다. 주회 측은 이번 참석 규모를 1만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3대의 대형버스, 7대의 승합차, 10여대의 마을버스까지 수송에 동원된다. 부산 지역 인물들로 구성된 찬양팀과 300명의 목사들이 참여해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100만 선 무너진 농촌가구

교회, 마을공동체와 상생 ‘귀농귀촌’ 주목

농촌이 쪼그라드는 현실이 지속되면서 지방 사역에 대한 교계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교단 차원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실사례 공유를 통해 농어촌교회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농어촌선교부(부장 전세광 목사)와 예장귀농귀촌상담소협의회(회장 이요한 목사)는 1일 세종 세상의빛교회(전세광 목사)에서 귀농귀촌상담소 운영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마을공동체 운동’을 로서 귀농귀촌 목회’를 주제로 열린 자리에는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농어촌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교회가 마을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마을 필요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사역’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목회사회학 교수는 ‘농촌교회의 마을공동체 운동으로서 귀농귀촌 목회’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는 “대부분 지역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수 감소, 관공서 기능 통폐합 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교회가 자원봉사자를 통해 그 일을 보완한다면 교회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다른 도시들보다 실제적인 영향력

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가 농사를 통해 물건으로 마을과 교류하고 더 나아가 ‘체험 민박’을 통해 구성원과의 교류하는 방식이다.

국내 지방에 정착하는 이주민의 증가 추세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주명 총회이주민선교협의회 상임총무는 “국내 농촌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회가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의 이해를 이끄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농가수가 100만 선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65살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절반(52.6%)을 넘어섰다. 국내 전체 고령 인구 비율(19.2%)과 견줬을 때 약 2.5배나 높다. 지방 사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도 전세광 목사는 “날로 쪼그라드는 농어촌, 그곳의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가고 교회의 크기와 외형적인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순서로 오필승(산동리교회) 이요한(교산중부교회) 김정하(상주낙동교회) 목사가 목회 사례를 발표했다.



7년째 생명나눔 실천한 초등학교

영훈초 7년째 이어진 기부, 310만 원 후원금 전달

서울 영훈초등학교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북구 영훈초등학교(교장 김대권)에서 후원금 전달식(사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한마음으

로 마련한 성금으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나눔 활동의 일환이다.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은 영훈초등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인성 교육과 봉사 활동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영훈인이라는 교육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1965년 개교 이래 다양



그라운드 위 신앙 열전 ‘JC리그’ 개막한다

5일 개막, 신앙으로 하나되어

크리스천들을 위한 풋살·축구 리그 JC리그가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축구 축제로 돌아온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이 대회는 신앙 안에서 선의의 경쟁과 교제를 나누는 장이 되고 있다. 오는 5일 오후 6시 경기도 부천 참빛교회에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리그전을 시작한다.

JC리그는 교회, 기관, 대학, 동아리 등 기독교 단체를 대상

으로 축구팀을 모집하고 있다. 행사는 지저스무브먼트(박래성 목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 제이리그 스포츠센터에서 주관하며 디딤돌교회(박래성 목사)와 다음세대문화선교팀 위트니스페스티벌이 협력한다.

참여 가능한 팀은 축구팀(15명)과 풋살팀(7명)으로 구성되며, 크리스천이라면 연령, 성별, 소속 국가와 관계없이 같은 공동체로 팀을 이룰 수 있다. 단,

현역 축구 선수 및 선수 출신은 출전이 제한된다. 한 기관에서 복수의 팀을 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개인이 여러 팀에 속할 수도 있다.

이번 리그는 총 5회차로 진행된다.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총 5주간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부평 신트리공원, 인천대공원, 인천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경기가 열린다. 마지막 경기만 월요일 오전에 열린다.

경기 방식은 풋살 경기(25분)와 축구 경기(50분, 전후반 각 25분)로 나뉘며 풋살 경기 후 각 팀의 우승팀끼리 축구 경기를 진행한다. 승무패 및 골득실 차를 기준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축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JC리그를 후원하는 교회와 크리스천 기업에서 운영하는 체험 부스와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놀이부스(P.P)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기쁨의교회 캠퍼스선교단체, 대학생 대상 AI 학습 지원

대학 생활 필수 된 각종 AI 도구 활용법 교육

용인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가 세운 캠퍼스선교단체인 JCM(Joyful Campus Mission·조이풀 캠퍼스 미션)이 대학 청년들의 AI(인공지능) 프로그램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나섰다.

기쁨의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AI STUDY’(인공지능 스터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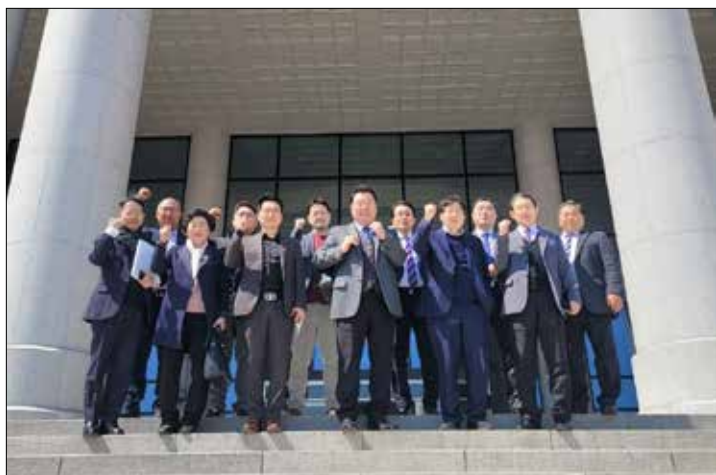
기쁨의교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 대학교 1학년 학생 40여 명 등 모두 80여 명의 대학생이 참석했다. 또 모든 교육은 JCM에 속한 선배들이 미리 도구 활용법을 배워서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학교 과제 수행을 도울 여러 AI 도구 활용법을 교육했다. 이외에도 이미지 생성 AI 활용법을 비롯해 비즈니스 소통 도구이자 대기업에서도 업무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하

고 있는 ‘노션(Notion)’ 같은 AI 도구 활용법도 안내했다.

기쁨의교회 측은 단순한 기술 학습을 넘어, 각 도구가 실제 학문적 활동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JCM 관계자는 “이제 대학생들에게 AI는 필수가 됐고, AI를 어떻게 활용해 선교 등 다양한 사역에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번 신입생들이 이 시대의 기술을 활용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정의호 목사는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학습 스터디는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의 중요한 통로이다”며 “학생들이 시대의 흐름을 배우는 동시에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STUDY’외에도 JCM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과 신앙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가려 한다”며 “캠퍼스 선교에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서 감당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

4개 단체 연합해 ‘정직과 투명’ 가치로 효율성 높인다

올해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주제는 ‘십자가, 십자가 부활 능력일세!’이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복음전파와 영적 흐름 회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부산의 4개 연합단체와 초교파 목사들로 이뤄진 12명의 국장과 50여명의 스태프들이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많은 부산 시민들이 참여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 모리아교회(박상철 목사)에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공동준비위원장인 박

상철 목사를 만나 연합예배 준비와 진행 과정에 대해 들었다. 박 목사는 “지난해의 어려움을 딛고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부산교회총연합회(부교총), 부산성시화운동본부(부성본), 부산교회회망연합(부회연) 4개 단체가 연합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연합 사역을 위한 영적 흐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원팀 구성’ ‘정직하고 투명한 사역’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작년의 운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해는 예배 간결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

mission 선교의 창 (25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구제와 나눔을 통한 공휼 사역

생명의 달, 4월이다.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수많은 꽃들이 자태를 뽐낸다. 철따라 대자연의 변화와 아름다움은 신비롭다. 하지만 인간사회는 왜 이렇게도 투쟁적이며 평화가 없을까? 동물사회처럼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대결, 미얀마의 지진, LA와 한국의 산불로 많은 이들이 죽고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도처에서 배회하는 난민들과 홈리스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들 외에 사회와 가정에서까지 버

1. 구제의 당위성

구제(Giving, 救濟)의 사전적 정의는 “불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다. 왜 교회가 구제 사역을 힘써야 하는가? 구제는 신, 구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신 15:10-11).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약한 눈으로 대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말며 궁핍한 자를 향

부끄러움 없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단순히 여유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구제가 단순한 인간의 선행이라면, 기독교의 구제는 사회경제학적 복지 보다 훨씬 뒤떨어진 개념일 것이다. 성경적 구제는 하나님의 공휼과 자비의 마음이 구체적인 물질과 치료의 행위로 실현되는 영적 사건이다.

2. 구제의 모범적인 사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

그 위에 이렇게 써 붙였다. “이 국술을 끊게 합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탄절에 불우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만큼의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웃을 돕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던 한 사관의 마음이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확장되었다. 구제의 손길은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구제군 자선냄비의 종소리를 타고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든다.

3. 유대인의 구제 원칙

히브리어로 구제를 가리켜 켄다카(קנדקא)라 한다. 이 단어의 본뜻은 “의로움, 공의”라고 할 수 있다. 원뜻만 가지고 말하면 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구제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기인한다. 그들에게서 구제란 공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무라고 믿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남을 돕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그들은 철저히 모으고 절약하며 가치 있는 곳에 통크게 봉헌한다. 그들은 상대방을 도울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

지 않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를 도우는지 모르는 경우이다. 5)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6)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직접 돕는 단계다. 7)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양을 돕되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경우이다. 8) 가장 낮은 단계로서 무뚝뚝한 태도로 돕는 경우이다.

4. 구제대상과 방법

구제는 대체로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즉, 빵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정능력이 안 되어 학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을 할 수 없으며 도저히 홀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다면 생활능력이 없는 고아나 과부, 소년 소녀 가장들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구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 오히려 자립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

을 원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6:3). 그러므로 교회는 값싼 구제로 마스크에 자신이나 단체의 이름을 들어내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와 배치되며 도움을 받는 이에게 부끄럼과 부담을 주게 된다. 구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표현이다. 구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곳에는 어떠한 조건도 들어가 있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맺음 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선행의 대표적인 것이 공휼 사역이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선교와 구제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한다. 우리는 구제가 비단 절기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습관화되어야 한다. 전하

마라톤 경주에서 낙오자가 있듯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이 세상에는 도저히 홀로 설 수 없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많다. 교회는 제도적 담을 헐고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림당한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문명발달과 함께 빈부귀천 없이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면 좋으려만 그렇지 못한 사회가 안타까울 뿐이다. 오호애제(嗚呼哀哉)라! 누가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가? 교회이다. 이제 기독교 교회들이 게토(Ghetto)적 담장을 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삶과 사역의 모델이신 주님은 결코 안온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 찾아다니셨다.

해 손을 펴라(신15:7-11).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듬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 2:15-17).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히 13:16)이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배고픈 자, 병든 자, 귀신들린 자 등 공휼 사역을 펼치셨다 (마 4:23).” 따라서 교회는 구제할 의무가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나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1서3:17,18). 자선(慈善) 냄비는 구세군 사관 조지프 맥피(Joseph McFee)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1891년 성탄이 가까워 오던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시 빈민들과 갑작스런 재난으로 슬픈 성탄을 맞이하게 된 천여 명의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했었다. 그는 오를랜드 부두로 나아가 주방에서 사용하던 큰 쇠술을 다리를 놓아 내걸었다. 그리고

록 무척이나 배려한다. 1) 가장 높은 구제의 단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어 사업을 일으키게 하거나 동업 또는 직업을 구해 주어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이다. 2)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구제를 받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돕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받을 일이 없다. 3) 돕는 자는 누구를 도우는지 알지만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이다. 4) 도움을 받는 자는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

온다. 목적이 좋으면 그 방법도 좋아야 한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구제에 대하여 은밀하게 실행하라고 명하셨다. 그 이유인즉 구제란 하나님의 공휼하심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구제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외식이다”(마 6:2). 순수성이 사라진 구제는 거지에게 주는 적선과 다를 바 없다. 나아가 성경의 원리대로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했다. “구제를 좋아 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

는 말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구제할 것은 없어도 도둑맞을 것은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는 개인이나 단체, 교회는 비록 적은 양일지라도 뭔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1 보화라 할지라도 더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기 때문이다. 공휼 사역에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으나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구제는 선교의 연장선에 있다. 여호와 살롬!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8강 요나단, 다윗 (2-3) (사무엘상 21장-사무엘하 4장)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였습니 다. 이미 사무엘은 죽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후였습니 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마음이 크게 떨리자 하나님을 찾습니 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삼상 28:6).

결국 사울은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기 위해 변장을 하고 갑니다(삼상 28:7,8). 그리고 결국 사무엘이라는 영을 만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삼상 28:17-19)는 절망의 말을 듣습니 다. 말은 맞지만 이렇게 해서 등장한 영은 절대로 사무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죽은 자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의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참전을 하려 했지만 아기스의 부하들은 또 반대합니다(삼상 29:3,4). 이번에도 또한 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29:5)를 기억합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블레셋 군사로 참전하는 극한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가 머물던 블레셋 땅 시글락에 돌아와보니 아말렉 사람들에 의

해 시글락이 불태워지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갔습니 다(삼상 30:1-3). 다윗은 위기에 처하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삼상 30:6) 하나님께 묻고(삼상 30:8) 아말렉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과 달리 다윗의 하나님과의 소통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니라’(대상 13:3)고 합니다. 내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소통’이 아닌 ‘요구’입니다. 이것은 ‘약’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결국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참전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블레셋이 큰 승리를 거두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삼상 26:10)고 했던 말처럼 사울이 죽고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 죽습니 다(삼상 31:1,2). 사울은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때에 그의 무기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 그 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 위에 엎드려져 죽고 맙니다(삼상 31:4).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죽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세상에 속해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사울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쁨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삼하 1:12)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합니다(삼하 1:19-27).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삼하 2:1-3).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쁨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삼하 2:4). 그런데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은 살아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삼하 2:8,9).

그렇게 시간이 7년 6개월이 흐릅니다(삼하 2:11). 그 기간 동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켄습니 다(삼하 3:1). 또한 그 전쟁 기간 동안에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고 마침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삼하 3:6,7).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왕의 첩과 동침을 하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살품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였고(삼하 16:20-23) 아도니야가 다윗의 시종을 들던 아비삭을 원했을 때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 죽인 것입니다(왕상 2:13-25).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삼하 3:8) 아브넬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삼하 3:12)라고 합니다. 이미 아브넬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삼하 3:9,10). 다윗은 자신의 첫번째 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삼하 3:13). 마침

내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헤브론으로 내려왔다가(삼하 3:17-21)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군대장관인 요압에게 죽 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삼하 3:22-27).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 아브넬의 피의 죽음의 죄를 요압과 그의 머리와 집에 돌리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삼하 3:33,34) 후에 죽을 때 솔로몬에게도 요압에 대한 처벌을 유언으로 남깁니다(왕상 2:5,6).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은 이후 군지휘관 두 사람에게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삼하 4:1-6).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머리를 가지고 온 그들을 죽입니다(삼하 4:10,11). 이렇게 사울도 죽고 요나단을 포함해서 그의 아들들도 다 죽고 군사령관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오직 요나단의 아들로 다리를 저는 자였던 므비보셋만 남았습니다(삼하 4:4).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이 세상의 왕으로 살기 원했던 사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왕의 수업’을 마친 다윗의 이야기, 이제 모두가 죽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게 될 하나님의 열심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에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세상을 다스리는 분 (대상1:1-54) 찬505장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인류 역사의 두 부류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이끄시는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은 첫째,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선과 악의 분별이 뚜렷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자씨처럼 성장하며 온 세상을 의와 평강으로 덮습니다(사 9:6).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화 구속에 맞춘 삶 (대상2:1-17) 찬338장

1-17절에 유다 자손의 계보를 독특하게 기록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속에 맞춘 기록을 발견합니다. 첫째, 유다의 맏아들 엘을 다루심을 설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심을 하나님 중심한 역사임을 말해 줍니다. 구속을 벗어난 마음, 태도 행위는 성령의 길을 막는 악한 행위입니다. 둘째, 다말로 인한 유다 자손의 전파 역시 구속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스도 조상인 다말을 통해 우리는 인간 장점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사임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불미스러운 신분의 여인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한 인생을 살아갈 때 구속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 된 구원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에 맞춥시다.

수 믿음의 후손 (대상2:18-55) 찬381장

역대상의 족보에서 두 가지 신앙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세상의 믿음(34절). 세상은 아들이 없자 애굽 종과 결혼시켜 가문을 이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가문이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레갑의 믿음(55절). 레갑 가문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렘 35:5-11).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적 결단을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도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목 다윗의 자손들 (대상3:1-24) 찬 507장

다윗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삶 그는 위대 했지만 가정은 복잡했고,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그에게 하나님은 죄 사람의 은혜를 보이셨고, 다윗은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예견했습니다(롬 4:7-8). 둘째, 솔로몬의 삶. 그

는 지혜의 왕이었지만 결혼생활의 실패로 우상숭배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일천번제와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구한 것은 참된 구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타협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금 야베스의 기도 (대상4:1-23) 찬 28장

유다 가문의 야베스는 기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악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개인의 주되심을 확신했습니다(9-10). 둘째, 기도를 바로 드렸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지경의 확장을 간구하며, 믿음

으로 큰 기도를 올렸습니다(히 11:6). 셋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공한 그는 존귀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믿고 구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토 시몬의 가문(대상4:24-43) 찬 383장

시므온 후손의 특징 첫째, 종족은 번성했으나 인물과 땅이 없었습니다. 세겜 성에서 저지른 살인 죄로 인해 후손들이 흩어졌고(창 49:6-7), 결국 유다의 기업을 물려받았으나 뛰어난 신앙 인물이 없었습니다. 둘째, 칼을

의지하여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을 정복했지만, 진정한 영적 승리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만이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렘 17:5-8).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14)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문서 작성용 AI 도구(AI TOOLS FOR WRITTEN CONTENT)의 활용 (4편)



Figure. Google Gemini

문서 작성용 AI 도구의 하나로 최근 많이 소개되는 것이 Google Gemini이다. Google Gemini는 Google DeepMind에서 개발한 멀티모달 AI 모델이다. ChatGPT처럼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코드, 오디오, 동영상 등을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인공지능 도구이다. 업그레이드 버전인 경우 자연어 처리(NLP), 코딩, 번역, 요약, 이미지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Google Gemini 사용법은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한다. Google 계정으로 Gemini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앱 사용은 Android에서 기존 Google Assistant를 대체하며, Google 앱에서 활성화가 가능하다. iOS의 경우 Google 앱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Google Cloud의 Gemini API를 통해 개발자들이 AI 기능을 앱 및 서비스에 적용하도록 지원해 준다.

Google Gemini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코드, 오디오 등 다양한 입력을 분석하고 생성해 주는 기능이다. 또한, Google 검색, Google 문서, Gmail, Google Drive 등과 연동하여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다.

또한, 고급 코딩 지원을 통해서 Python, JavaScript, C++, SQL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코드 작성 및 디버깅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Google Translation처럼 다양한 다국어 번역과 문서 요약 기능이 뛰어나 글로벌 사용자들에게 유용하다. 또한, 실시간 정보 검색 가능하다. 즉 Google 검색과 연동하여 최신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Google Gemini는 Google 계정과 연동되므로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조심이 필요하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Gemini 기능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다.

문서 작성용 AI 도구로 Jasper AI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Jasper AI는 인공지능 기반 글쓰기 도구이며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콘텐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특별히 마케팅, 광고, 블로그 콘텐츠 제작에 특화되어 있다.

Jasper AI의 주요 기능으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 준다. 광고 문구, 소셜 미디어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제품 설명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위한 템플릿을 제공해 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글을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또한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와 문장 구조를 지원해 준다. 또한 마케팅 특화 기능으로 AIDA 프레임워크(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와 같은 마케팅 이론을 기반으로 설득력 있는 광고 문구를 생성하고,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한, 생성된 콘텐츠를 SEO(검색 엔진 최적화)에 맞게 최적화하여 웹사이트나 블로그의 검색 엔진 노출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다양한 다국어 지원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Jasper Art라는 기능을 통해 AI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로그 게시물, 소셜 미디어 콘텐츠, 이메일 마케팅 자료 등 다양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을 통한 콘텐츠 마케팅, 제품 설명, 상품 소개 등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작가 및 블로거의 창작 활동 지원 및 블로그 콘텐츠 제작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문서작성용 AI 도구들은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효율적인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이다.

dr.jameskoo@yahoo.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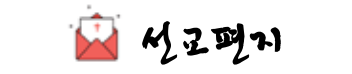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대회가 열린 이스탄불의 2월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4박 5일 대회 기간 내내 눈이 내렸습니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둘째 날부터는 대회장 천정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와 통로 여러 곳에 물통이를 받쳐놓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물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시간마다 부어졌습니다.

선교대회의 백미는 여섯 개 선교지의 현지인 동역자들의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안에 선교의 목적과 전략이 담겨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SEED 선교 역사 35년의 열매를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제자 삼기에 눈을 열어준 대회였습니다.

바톤 터치

대회 마지막 날 폐회예배에 바톤 터치 순서가 있었습니다. SEED가 사역하는 국가들과 선교지역들을 새긴 특별한 바톤을 새 국제대표로 선임되신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승렬 목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합니다”--SEED의 존재 목적이자 비전이 구체화되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SEED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6백개가 넘는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 탐방

선교대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선교지 그리스 탐방으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 선교사 후보 시절에 혼자 배낭을 메고 돌아본 적이 있는데, 35년이 지나서 SEED 가족 350명과 함께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도착한 네암볼리 항구, 억울하게 갇혔던 빌립보 감옥 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했던 아테네 아레오바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던 고린도의 유적지... 복음 변증에서 교회 개척으로, 그리고 제자 삼기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 성숙한 곳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바로 지금의 그리스였습니다.

겐그레아

이번 그리스 탐방에서 꼭 가고 싶었던 곳은 겐그레아 해안이

제5차 SEED 국제선교대회

있었습니다.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며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향하던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항구입니다. 아시아로 가던 길을 막으셨던 성령님의 뜻은 2차 선교에서 눈을 뜬 제자 삼는 사역을 에베소에서 실행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남은 시간을 오직 제자 삼기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를 하며 겐그레아에서 재현신의 결단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교의 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걸어 갈 마지막 선교의 길을 바라보며 재현신의 결단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18년 여름에 청년을 동원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음 시대에도 선교가 계속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선교지의 현지인 청년들이 선교의 일꾼으로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못다한 방송 선교와 아직도 불가능해 보이는 사도행전 영화 제작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또 겐그레아에서 에베소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던 바울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천년 전 최고의 문명 도시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날마다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AI 영상 시대에 사도행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로마를 뒤집었던 분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성령님이셨습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도 성령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SEED 선교회가 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선교사가 함께 선교하는 선교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2. 저희 부부가 남은 생애에 청년선교동원과 방송 선교, 사도행전 영화 제작에 재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3. 모세와 사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해 주세요.

박신욱 유혜숙 선교사 드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인도네시아
- ▲ 종족명 봉쿠 종족
- ▲ 인구 약 27,000명
- ▲ 종교 이슬람교 99.99%, 복음화율 0.01%
- ▲ 복음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기타 매체 없음
- ▲ 종족 프로파일
술라웨시 지역에 흩어져 살고 농사를 짓는다. 신분계급이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 먼 내륙 지방에 살면서 외부 사람들과 거의 접촉이 없었으나 술라웨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외부인에게 점차 개방되었다.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으나 정령숭배도 남아 있다.
- ▲ 기도제목
1. 복음이 전해져 봉쿠 종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2. 영적 갑급함을 가진 가족이나 공동체가 연결되어 봉쿠어 성경 번역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3. 봉쿠 종족에게 필요한 인프라가 공급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재정과 의료 등의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사순절을 지내며, 지난 금요일 성령기도회 때 첫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곡입니다.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가라미에 옷 젖듯이 내 영혼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내 영이 표현 못 할 고요함,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 노랫말이 가슴을 울리며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내 의가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다짐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연대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십자가'의 단어가 최초로 언급된 곳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바울은 짧은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를 무려 일곱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많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다가, 십자가의 은혜로 순교했습니다. 아, 십자가 은혜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bible66@gmail.com

아, 십자가 은혜여!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캐나다 한국/동남아시아	\$100 \$130 \$24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240 \$240

신청유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목 사 ☐	영어:	평신도 ☐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헌츠빌 영락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저희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는 3대 목사님께서 20년간 은혜롭게 시무하신후 주님의 축복으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신바 제4대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 합니다

자격요건

- *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 Div)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 목사 안수 후 Full-time으로 목회경험이 5년(담임목사/부목사 포함) 이상인 분
- * 미국에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이중언어(한/영) 설교 및 소통 가능하신 분
- * 목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한국어, 영어 각 1부씩)
-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 *나이 40세~55세
- *목사 안수 증명서
-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 *목회자 추천서 최소 2통(목회자가 직접 이메일로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한국어/영어 설교 2회분씩)(동영상 링크)
- *신앙 고백서
- *목회 철학
- *목회 계획서

[모든 서류는 공지된 이메일 (wellregina@hotmail.com) 로만 접수됩니다. 제출된 서류/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 및 통보

서류접수는 2025년 4월 30일 오후 6시 까지이며 1차 통보는 10일 후인 2025년 5월 10일까지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로는 받지 않으니 이메일 (wellregina@hotmail.com)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는 독립된 건물로써 자체 성전과 안락한 친교실, 주일학교 교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불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목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Huntsville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
Email: wellregina@hotmail.com
Address: 7904 Whitesburg Drive, Huntsville AL, 35802, USA

베드로 진서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였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승무원이 가까이 오더니 혹시 좌석에서 앉아계실 때 윈도우가 불편하시면 따로 걸어주겠

다고 제안을 했다. 그 말에 옆 좌석의 한 신사께서 윈도우리를 맡겼다. 그러자 승무원이 분실을 걱정하면서 혹시 윈도우리에 무슨 중요한 것이 있는나고

물으면서 그렇다면 미리 빼놓으라고 부탁했다. 그때 그분의 대답이 결정이었다. “중요한 것은 나요.”

맞는 말이였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다. 자신이 병들거나 사고가 나고 어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또한 그에 딸린 자신의 가족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주변의 일과놓았던 친구나 친지 등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사업이나 삶 그 자체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처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다 하는 생각이 들

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고, 중요한 것은 나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도 생각하게 했다. 이기적 사고가 크게는 전쟁을 일으켰고 작게는 가정과 사회 때로는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목사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나란 표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뜻에 순종할 때 중요한 존재가 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revpeterk@hotmail.com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

(1면에서 계속)

이 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아이들은 더욱 극심한 압박을 받으며 성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려 한다. 『Never Enough: When Achievement Culture Becomes Toxic』의 저자 제니퍼 브레헤니 월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학생들은 교실에서, 또래 사이에서, 교사와 대학, 소셜미디어, 그리고 더 넓은 문화 속에서 끊임 없이 성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더 노력해야 해, 더 잘해야 해, 다음 성취가 너의 가치야’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위치를 찾으려 할 때, 이러한 메시지는 해로울 수 있다. 2018년 로버트 우드 존슨 청소년 웰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해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능가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이 있는 가정 및/또는 학교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 혹은 알코올과 약물 의존을 초래할 수 있다.” 브레헤니 월리스 또한 동의한다. “우리는 외로움, 불안, 우울, 자살이라는 파괴적인 전염병을 겪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지켜나간다. 세상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똑똑하게 행동하며, 더 나아져야 우리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세상은 우리의 중요성이 이력서의 길이에 달려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이미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고 선언한다(창 1:26; 시 139:13-14). 또한,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빛난다고 가르친다(고후 12:9).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세상이 아이들에게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매일 유혹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게 할 수 있을까? 다음 네 가지 원칙이 아이들을 진정한 자량의 대상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렘 10:17).

1.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

나는 이제 아이들이 대화에서 첫 루트를 오르기 전에 하는 한 가지 습관이 있다. 그들이 허리에 찬 가방에서 손에 초크를 묻히려 할 때, 나는 다가가서 조용히 속삭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꼭 즐기고 오렴”

결국,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사랑받고 싶은 갈망의 표현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들의 행동이나 성과에 따라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시켜 줄 때, 우리는 그들의 연약한 마음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 주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아이들

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모습이나 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받거나 많은 봉사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랑이 풍성하시며, 은혜로 가득하신 분이시기에 사랑하신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우리가 아직 죄



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롬 8:38-39). 아이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진리를 가르쳐라. 매일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듬뿍 베풀어라. 이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영원히 품으시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작은 모습이 될 것이다(시 100:5).

2.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칭지기 정신’을 목표로 삼으라

아이들이 가진 재능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

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선물이다(롬 12:4-8).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고전 6:19-20).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분의 창조 세계를 맡기셨다(창 2:15).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다(엡 2:10).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능이나 직업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다(창 1:26).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시험 점수나 운동 경기 성적과 무관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요 일 3:1).

아이들이 학생, 운동선수, 예술가 등의 타이틀을 받기 전에, 그들이 누구인지 먼저 가르쳐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된 존재이다(벧전 2:9).

4.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칭찬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을 보여주라

칭찬은 강렬한 기쁨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뇌에서는 운동을 하거나 초콜릿을 먹거나 오피오이드를 복용할 때 활성화되는 것과 동일한 보상 중추가 반응한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도파민 상승 작용과 마찬가지로, 이 효과는 일시적이고 금세 사라지며, 우리는 더 많은 칭찬을 갈망하게 된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폴과 같이 시들며(사 40:8; 51:12),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것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전 1:11).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민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종종 무심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라고 묻는다. 마치 직업이 곧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성경은 더욱 깊고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아이들의 가치는 그들의 재

가르칠 때, 사람들의 인정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 순간, 가장 작은 일에도 진정한 의미가 부여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고전 10:31; 골 3:17).

3.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하라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종종 무심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라고 묻는다. 마치 직업이 곧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성경은 더욱 깊고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아이들의 가치는 그들의 재

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을 좇는 것은 기껏해야 어리석음이며, 최악의 경우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요 5:44).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다. “사람이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경고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이들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가르쳐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라(마 22:37-38).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쁨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3-24)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라. 자녀들이 그 상급의 크기와 달콤함을 깨닫게 될 때, 세상의 인정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1년 후 다시 챔피언십에 출전한 책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4위를 차지했다. 한 코치는 책이 단 한 개의 홀드만 더 잡았더라면 순위가 더 올랐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책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쎄. 하지만 그러면 제 친구가 3위를 못 했을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메달을 딴 게 정말 기뻐요. 제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by Kathryn Butler, TGC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39th Anniversary

Midwest University(제임스 송, 총장/설립자)는 1986년 미국 중부 St. Louis에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교육부 (USDE), 대학학력인준 기관인 CHEA와 ABHE의 인준을 받은 미국정규 종합대학교입니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